

영 화

1960년 '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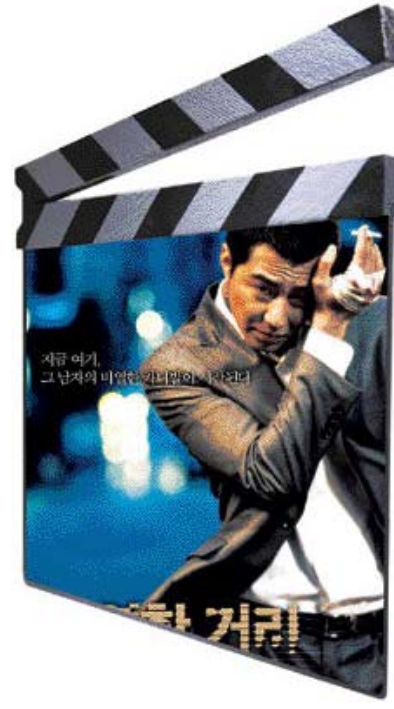
1966년 '만추'



1967년 '월하의 공동묘지'



2006년 '비열한 거리'



한국영화 고전들 부활한다

한국 영화사를 장식했던 영화들이 속속 리메이크 된다. 특히 각 작품마다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을 결정, 작품의 완성도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한국 영화사에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개봉 50주년을 맞는 내년 또 다른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도', '화녀', '충녀' 등 에로티시즘이 가미된 독특한 영화 세계를 펼쳐보였던 김기영 감독의 대표작인 '하녀'는 불륜과 살인, 비틀린 욕망이 불러온 한 중산층 가정의 파국과 몰락을 그린 작품으로 과격적인 스토리와 에로티시즘, 탄탄한 구조로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60년 작에는 김진규와 이은심이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안성기가 아역으로 얼굴을 내비쳤다.

이번에 새롭게 리메이크된 '하녀'의 타이틀물은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전도연이 맡았다. 최근 출산 등으로 잠시 영화계를 떠난 후 컴백작으로 '하녀'를 택한 전도연은 비극을 임태하는 도발적인 하녀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감독은 '처녀들의 저녁식사', '바람난 가족', '그때 그

'하녀' '만추' 리메이크... '비열한...'는 영어버전으로

전도연·현빈·탕웨이 등 연기파 배우 캐스팅 눈길

사람들' 등 도발적인 소재를 주로 다뤘은 임상수다. 최근 '하녀'의 시나리오를 썼던 김수현 작가가 임상수 감독이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고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회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터라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영화다.

'돌아오지 않는 해변'의 이만희 감독 작품인 '만추'도 리메이크 된다.

1966년 문정숙 주연으로 관객들을 만났던 '만추'는 1981년 김수용 감독이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했으며 일본에서도 1972년 '약속'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만추' 리메이크는 평단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가족의 탄생'의 김태용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각본까지 직접 써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만추'는 모범수로 특별휴가를 나온 여자가 도주 중인 한 남자를 만나 벌어지는 시한부 사랑을 그린 영화로 김수용 감독 버전에서는 김혜자와 정동환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2010년판에서는 최근 드라마 '친구' 등을 통해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현빈과 리안 감독의 '색,계'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떠오른 탕웨이 가 주인공으로 열연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에서 11월말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한국의 대표 공포물인 '월하의 공동묘지'도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의 관객을 보유한 베르디 픽처스는 최근 내년 여름을 겨냥해 '월하의 공동묘지'를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철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1967년작 '월하의 공동묘지'는 개봉 당시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한국적 공포의 정서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한편 유하 감독의 '비열한 거리'는 영어 리메이크 버전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던 '내셔널 트레저' 제작사 스파클러 엔터테인먼트와 CJ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한다.

'비열한 거리'는 삼류 강패로 살아온 청년이 조직의 1인자가 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과정을 그린 갱스터 느와르로 탤런트 김민의 남편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재미교포 이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2012'

그들이 경고한 마지막 날
2012년 12월 12일
지구는 멸망 할 것인가?

지구의 멸망을 소재로 한 재난 블록버스터물이다.

이혼한 소설가 짝슨은 아이들과 찾은 캠핑장에서 호수가 메말라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과학자 찰리는 그에게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고, 정부는 이미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경고한다.

2012년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예측한 미국 정부 등 강대국들은 이미 3년 동안 선별된 지구인을 피난시킬 계획을 수립해왔고, 2012년이 되자 결국 전세계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정부 계획을 알아챈 짝슨은 무너지는 LA에서 가족을 구해서 피난길에 오른다.

연기와 배우 존 쿠식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만다 피트, 우디 헤럴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투모로우' 등 재난 블록버스터에 장기를 발휘해온 로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중국 대륙이 물에 잠기고, LA의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는 장면, 쓰나미 장면 등 컴퓨터로 구현한 장면들이 눈길을 끈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귀가 편안합니다 3. 소리가 맑고 선명합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송정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생명력 넘치는 물

"헥사곤"

6-스테이지 파이워드 정수기

- 양압정수, 자외선살균, 피음수 100%
- 세제없이도 통정수기판에 99% 오염 제거
- 6-스테이지 정수 시스템
- 1. 세제없이도 99% 오염 제거
- 2. 100% 피음수 100%
- 3. 100% 피음수 100%
- 4. 100% 피음수 100%
- 5. 100% 피음수 100%
- 6. 100% 피음수 100%

이제 정수기 가격의 1/10을
확실히 정수했습니다!!

지역총판 및 대리점 모집

호남지사 (062) 434-9194
 광주점 (061) 275-4200
 상무지점 (062) 375-0230

대한민국 최초!

무료

문성 커뮤니티, 탄생

100%

1666-5425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25평)
- 지 역 : 은-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분	면적(㎡)	비고
총면적	1770.00	525평
1층	584.2	특정목적시설용지
2층	584.2	일반주거지역
3층	450.0	일반주거지역
4층	450.0	일반주거지역
5층	450.0	일반주거지역
합계	2700.0	

- 추정용도
- 예식장, 별관, 교학, 학원, 대형마트, 사무실, 체육시설 등
- 매매가 : 20억(대금 10억 포함)

상무전화 ☎ 011-625-8153